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하반기 House View 변경

위험 선호 전략 유지, 한국 채권 내 비중 변경

- 하반기 자산 배분은 '주식 확대 - 채권 축소 - 현금 중립' 의견을 유지
- 국내 채권은 국채 대비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크레딧을 더 선호하여 의견 조정
- 이란전쟁 휴전으로 누적된 공급 증가가 반영될 전망이다 원유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

'26년 하반기에도 위험 선호 포트폴리오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 주요국 성장세가 대체로 잠재 수준에 수렴하는 가운데, AI 투자 지출 강화가 성장을 견인하며 주식·상품 등 위험자산 수요를 지지할 것.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년 1분기경까지 잔존할 수 있으나, 하반기 중 유로존·아시아 주요국이 금리 인상에서 벗어나는 반면 연준은 동결 또는 인하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달러 기축성과 압도적 미국 금융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역외 긴축에도 연준 완화가 지속되는 한 글로벌 위험 선호 환경은 우호적이라고 평가하며, 하반기 자산 배분은 '주식 확대 - 채권 축소 - 현금 중립' 의견을 유지.

다만, 하위 자산별로 채권에 대한 투자의견을 미세 조정.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급증에 따른 무역 조건 충격(positive terms of trade shock)이 발생했으며, 조세, 임금, 투자를 통해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는 과정. House View 기준 GDP 성장률 3.2%, GDI 성장률 8.1%까지 상향되면서 수요 측 물가 압력도 높아지는 여건. 유례없는 경제 환경과 위험자산 강세 속 채권 투자 위축 불가피. 국내 채권은 국채 대비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크레딧을 선호. 한편 상품시장은 자산 배분 대상군은 아니나 의견은 제시. 이란전쟁 종전 협상 개시로 누적된 공급 증가가 빠르게 반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원유에 대해 하반기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

하반기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26일 발간될 보고서를 참고.

### 하반기 자산 배분 전략 (House View)

	하반기			향후 12개월		
	-1	0	+1	-1	0	+1
<b>Global Asset Allocation</b>						
주식	□	□	■	□	□	■
채권	□	■	□	□	■	□
현금	■	□	□	■	□	□
<b>주식</b>						
미국	○	●	○	○	○	●
유로존	●	○	○	●	○	○
중국	○	●	○	○	●	○
한국	○	○	●	○	○	●
<b>채권</b>						
한국 국채	● ←	○	○	●	○	○
미국 국채	○	○	●	○	○	○
한국 크레딧	○	● →	○	○	●	○
<b>대체 투자</b>						
원유	● ←	○	○	●	○	○
금	○	●	○	○	●	○

참고: +1: Positive, 0: Neutral, -1: Negative, ■ 기존 의견 ■ 현재 의견

자료: 삼성증권

### Compliance Note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 삼성증권

###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